

‘ACC 필름아카이브’ 독일 영화제 간다

〈오버하우젠 국제단편영화제〉

실험영화 보존 앞장 인정
아카이브 섹션 국내 첫 초청
다음달 한옥희 ‘구멍’ 등 상영



국제아시아 문화전당(이하 ACC)의 필름아카이브가 내달 3일부터 8일까지 독일에서 개최되는 제64회 오버하우젠 국제단편영화제(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Oberhausen)에 국내 최초로 공식 초청됐다.

오버하우젠 국제단편영화제 메인 섹션 중 하나인 ‘아카이브(Archives)’는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영상 아카이브를 선정해 소개하는 섹션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도쿄국립현대미술관(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Tokyo) 필름센터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에서는 첫 번째로 ACC 필름아카이브 오버하우젠 선정됐다.

ACC 필름아카이브는 그동안 영화산업에서 배제되고, 체계적으로 수집하지 못했던 실험영화 등을 자료들과 함께 연구, 수집, 복원 등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디렉터에게 직접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은 칸느’로 불리는 오버하우젠 국제단편영화제는 1954년에 출범해 올해 64회를 맞이한 단편영화제다.

1962년 이 영화제에서 발표한 ‘오버하우젠 선언(Oberhausen Manifesto)’은



‘ACC 필름아카이브’ 자료 전시 모습.



영화 ‘구멍’(한옥희 연출).

기존의 영화적 규범을 탈피하고 미학적 혁신을 이루자는 감독들의 선언으로, 뉴저먼 시네마(New German Cinema)를 탄생시켰고 동시에 세계영화사의 주요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당시 주축이 된 알렉산더 쿠르케, 빔 벤더스,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감독들 그리고 현재 상업영화 내에서도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을 만드는 조지 루카스, 데이비드 린치, 마틴 스코세젤라, 프랑수아 오

종 감독 등이 오버하우젠 국제단편영화제에서 이름을 알린 감독들로 유명하다.

ACC 필름아카이브가 초청받은 ‘아카이브(Archives)’ 섹션은 문화예술 아카이브가 중요 화두로 떠오르던 2013년부터 공식으로 선보였다. 실험·예술영화의 보존과 복원에 앞장서는 세계 각국의 예술기관을 매년 선정해 아카이브 소개 프레젠테이션과 주요 소장 작품 상영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까지 프랑스 푸피두스테르, 시네마테크 프랑세즈, 영국 국립필름아카이브, 미국 아카데미필름아카이브, 하버드필름아카이브, 네덜란드 아이필름인스티튜트 등이 초청됐다.

이번 영화제에서 ACC 필름아카이브는 한국 초기 실험영화인 김구림의 ‘24분의 1초의 의미’와 한옥희(카이두 클립)의 ‘구멍’, 일본 테라야마 슈지의 ‘죄수’ 등의 작품을 모두 16mm 필름으로 상영할 예정이다.

또 ‘실험영화의 유산과 아시아의 도전’을 주제로 김지하 아시아문화원 자원운영팀 책임연구원의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된다.

한편, ACC는 2015년 개관부터 현재까지 아시아 10개국 작가의 800여 편의 작품을 수집한 필름아카이브 오버하우젠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ACC 시네마테크’로 확장해 운영되며, 수집·연구와 더불어 영화 제작지원 및 상영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뉴욕의 매디슨 애비뉴 75번가를 걷다 보면 피라미드를 엮어놓은 듯한 건물이 눈에 띈다.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마르셀 브로이어가 설계한 휘트니 미술관이다. 기능적이고 단순함이 돋보이는 바우하우스 스타일의 미술관은 건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작품이다.

휘트니 미술관은 1930년 미국 전역에 철도를 건설한 철도왕 밴더빌트 가(家)의 손녀인 거트루드 밴더빌트 휘트니(1875~1942) 여사가 수집한 700여 점의 컬렉션으로 출발했다. 경제형편이 어려운 젊은 작가를 지원하기 위해 그들의 작품

높이고 있다. 최근 국제미술계의 이슈메이커는 단연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다. 시카고 중심가에 자리한 이 미술관은 얼마 전 경매산업(듀코소아 그룹)으로 부를 일군 자넷 & 크래그 듀코소아(Janet & Craig Duchossois)부와 투자자문 회사 CEO 출신인 로버트 & 다이앤 레비 부부(Robert & Diane Levy)로부터 각각 5천만 달러, 2천만 달러 등 총 7천만 달러(한화 748억 원)를 후원 받았다. 시카고를 연고로 수십 년 간 비즈니스를 해온 두 기업은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으

공공이 행복한 ‘문화갑질’이라면

〈公共〉

을 하나 돌씩 구입해준 게 ‘휘트니 컬렉션’의 뿌리가 됐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위치한 뉴욕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모마)은 기업들의 메세나로 성장한 ‘국민 미술관’이다. 석유왕 록펠러 가문의 후원에 1929년에 문을 연 모마는 내로라하는 미국 재벌들의 메세나를 기반으로 회화, 조각, 사진, 영화 등 20만여 점을 보유한 ‘현대미술의 메카’다.

무엇보다 어린이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은 모마의 자랑거리다. 특히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포드 패밀리 프로그램’(Ford Family Program)은 뉴욕의 공공브랜드가 됐다. 포드사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모마측에게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지원금을 사용하면 즉각 회수하겠다”는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포드사의 ‘갑질’ 덕분에 포드 패밀리에 참가하는 뉴욕커들은 무료로 미술관 투어, 작가와의 대화 등을 통해 현대미술에 대한 안목을

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시카고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라며 “시민들의 문화습득인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가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거듭나는 데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며 기부배경을 밝혔다.

이 같은 미국 기업인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는 요즘 ‘물벼락’과 ‘비서갑질’ 등으로 여론의 눈총을 받고 있는 일부 국내 기업인의 무개념 행태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전문학적인 기금을 내놓다 보니 미국의 재벌들 역시 ‘요구사항’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180도 다르다. 표면적으로 조건없는 지원을 내세우지만 미술관측이 시민들을 위한 공적 용도에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없던 일’ 운운하며 깡깡하게 굴기 때문이다. 언제쯤이면 우리도 이런 근사한 기업인들을 만날 수 있을까. 공공이 행복해지는 ‘문화갑질’이라면 눈곱이 줄 수도 있는데.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표준어와 방언, 치열한 대결의 역사

정승철 서울대 교수 ‘방언의 발전’ 출간



남도 지역에서 많이 쓰는 말 가운데 ‘거시기, 머시기’가 있다. 2013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전의 주제이기도 했던 ‘거시기, 머시기’는 방언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어감이 주는 착시현상은 듣는 이로 하여금 지역의 정서를 환기한다.

‘거시기, 머시기’는 두 단어 모두 사투리 같지만 하나는 표준어이고 하나는 방언이다. 종종 상대의 말속에 감추어진 맥락을 짚어낼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다. 여기에는 다소 모호하지만 ‘소로 통한다’라는 공통의 정서가 내재돼 있다.

지방이 고향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투리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다. 유년의 추억이나 고향의 향수를 떠올릴 수 있지만 더러는 당혹스러운 기억과 연관된 때도 있다. 자신의 사투리 억양이 우스워 보일까 걱정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느 지방의 말이고 ‘틀린’ 말은 없으며 ‘다른’ 말이 있을 뿐이다.

서울대 국문과 정승철 교수가 펴낸 ‘방언의 발전’(창비·사진)는 표준어와 방언, 그 치열한 대결의 역사를 조명한다. 저자

는 일제 강점기 소설에서부터 오늘날 드라마와 영화, 가요에 이르기까지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해 문화 속의 방언의 위상을 살펴본다.

그렇다면 사투리는 언제부터 푸대접을 받았을까.

저자는 ‘표준어’는 19세기의 제국주의 또는 국가주의 시대의 산물이라고 규정한다. “그것은 서양 제국주의 국가(일본 포함)에서 국민의 의사 전달 수단을 통일하여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국에 대한 침탈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그러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표준어 교육 정책과 매스컴의 발달로 전국의 방언 차는 점차 감소했다. 2000년대 이후 지방자치체가 강화되고 모바일과 SNS 등의 발달로 ‘확일’보다 ‘다양’, ‘전체’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문화가 급속히 확산됐다.

저자는 이제는 ‘방언 사용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것은 곧 다양성을 수용하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방언의 가치를 발견하고 기억의 복구를 통해 전통 방언의 소멸 속도를 늦추는 작업은 결국 고향을 잃는 속도(나아가 문화적 다양성의 상실 정도)를 줄이는 일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극단 신임 예술감독에 나상만 연출가

수 개월간 공석이던 광주시립극단의 새로운 예술감독에 연극 연출가 나상만(61·사진)씨가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최근 면접심사를 통해 광주시립극단 신임 예술감독으로 나상만 전 경기도 교수를 뽑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 예술감독 박모(65)씨가 보조금 유용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해촉된 지 5개월만이다.



무안 출신인 나씨는 중앙대와 중앙대 대학원에서 연극을 전공했으며 러시아 국립 예술원에서 예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83년 광주시립극단과 첫 인연을 맺고 ‘베니스의 상인’, ‘자작 희곡 ‘초신의 밤’ 등을 연출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 완벽방수
- 내구성보강
- 2중단열
-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 6년무상A/S 정기점검

특허공법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난연소재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062)511-0444
전남 (061)284-0485
H.P 010-6603-0405 (061)683-0485 (061)726-0482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